

사회

日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1년...영광원전 가보니

안전설계 세계 최고... "강진·해일 끄덕 없어요"

이중 보호장치 구축...방수문·배수펌프 2014년까지 완료

국내에서 유일하게 서해바다에 위치한 영광 원자력발전소. 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1년을 앞두고...

실, 저압터빈-C의 조립작업을 하는 직원들의 바쁜 손놀림에는 긴장감마저 흘렀다.



8일 영광원자력본부 직원들이 영광 원전 1호기의 핵심시설인 저압발전터빈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치고 조립작업을 하고 있다.

안내를 맡은 강성권 차장은 "세계 그 어디 원전 보다도 안전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영광에 있는 6기의 원자로들은 단단한 화강암 기반에 발목을 박은 형태로 지어졌기 때문에 리히터 규모 6.5 강진에도 끄덕 없다"고 했다.

또 최근 지어지는 표준형 원전의 경우 주요구조물과 원자로냉각재계통은 실제 내진성능평가 때 규모 7.2의 지진에도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원전측은 지진 또는 폭풍 해일 발생 시 최고 수위가 8.4m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광 원전은 해수면에서 10m 가량 높은 곳에 위치해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파도가 원전을 덮칠 일은 없다고 한다.

원전측은 이를 위해 비상차절발전기, 축전기, 사용 후 연료저장조 냉각계통 및 냉각해수 취수계통 등에 대한 방수문과 방수형 배수펌프를 2014년까지 개선하고 완료할 방침이다.

김대경(58) 영광원자력본부장은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원전사고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방책을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교육훈련도 반복하고 있다"며 "자원 인력인 한국인의 입장에서 원자력이 차선의 에너지인 만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안전하게 관리, 전력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주기 연속 무고장 안전운전 기록을 달성한 영광 원전 1호기는 1달간의 계획예방정비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김대경(58) 영광원자력본부장은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원전사고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방책을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교육훈련도 반복하고 있다"며 "자원 인력인 한국인의 입장에서 원자력이 차선의 에너지인 만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안전하게 관리, 전력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주기 연속 무고장 안전운전 기록을 달성한 영광 원전 1호기는 1달간의 계획예방정비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김대경(58) 영광원자력본부장은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원전사고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방책을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교육훈련도 반복하고 있다"며 "자원 인력인 한국인의 입장에서 원자력이 차선의 에너지인 만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안전하게 관리, 전력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52분 해질 18시 35분 달돋이 19시 45분 달질 06시 53분

주말 꽃샘추위 대륙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겠다.

Table showing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 Korea,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and conditions like 'cloudy' or 'rainy'.

Table showing tide information for the East Sea (동해) and South Sea (남해), including high and low tide times and depths.

Table showing the 7-day weather outlook (기상내전화) with icons for sun, clouds, and rain, along with high and low temperature ranges.

2014 수능 대학 및 계열별 반영 방법

Large table detailing university admission methods for the 2014 college entrance exam, categorized by subject (A, B) and university type (A, B).

日 수산물 방사성물질 검출 급증

고등어·명태·방어 등서 세습 발견

올해 들어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8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일본산 냉장명태 8.7t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kg당 1.37 베크렐(Bq) 검출된 이후...

작년 4월부터 연말까지 세습 검출 건수 21건보다 11건(52.4%) 많은 수준이다. 종량 기준으로는 올해 두 달간 881.3t으로 작년 4~12월 148.8t의 6배에 육박했다.

올해 들어 일본산 수산물에서 세습 검출이 잦은 것은 작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바다에 유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악의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요즘도 매일 시간당 6000만~7000만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검사본부는 방사성 물질 검출 사례가 늘었지만, 인체에 큰 해를 끼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올해 일본산 수산물에서 나온 세습 최고치는 6.24베크렐로 식품 허용 기준치인 370베크렐의 1.7% 수준이다.

작년 7월 냉장대구에서 세슘이 33.20베크렐과 97.90베크렐 검출되기도 했지만, 이후로는 검출치가 한자릿수를 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8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일본산 냉장명태 8.7t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kg당 1.37 베크렐(Bq) 검출된 이후...

작년 4월부터 연말까지 세습 검출 건수 21건보다 11건(52.4%) 많은 수준이다. 종량 기준으로는 올해 두 달간 881.3t으로 작년 4~12월 148.8t의 6배에 육박했다.

올해 들어 일본산 수산물에서 세습 검출이 잦은 것은 작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바다에 유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악의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요즘도 매일 시간당 6000만~7000만베크렐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검사본부는 방사성 물질 검출 사례가 늘었지만, 인체에 큰 해를 끼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올해 일본산 수산물에서 나온 세습 최고치는 6.24베크렐로 식품 허용 기준치인 370베크렐의 1.7% 수준이다.

작년 7월 냉장대구에서 세슘이 33.20베크렐과 97.90베크렐 검출되기도 했지만, 이후로는 검출치가 한자릿수를 넘지 않고 있다.

상위권大 가려면 영어B형 선택 필수

대학별 2014년 수능 반영 방법 발표...5월 17일 예비시험

수준별 시험으로 바뀌어 현재 고교 2학년생들이 치르는 2014년 수능에서 상위권 대학 진학을 노리는 수험생은 인문·자연계열 구분없이 영어 B형을, 국어는 인문계의 경우 B형, 자연계는 A형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은 국어·수학·영어에서 A형과 B형 중 하나를 선택해 응시하되 B형은 최대 2과목까지 응시할 수 있다. 단, 인문계열 상위 난도인 국어 B형과 자연계열 상위 난도인 수학 B형은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

사하(10과목)·과학탐구(8과목) 영역은 최대 2과목까지 선택 가능하며 직업탐구(5과목) 영역은 1과목만 선택한다. 제2외국어·한문(9과목) 영역도 1과목을 선택한다.

상위권도인 B형을, 수학은 하위난도인 A형을 반영하기로 했다.

반대로 이들 대학의 자연계열은 수험생은 인문·자연계열 구분없이 영어 B형을, 국어는 인문계의 경우 B형, 자연계는 A형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은 국어·수학·영어에서 A형과 B형 중 하나를 선택해 응시하되 B형은 최대 2과목까지 응시할 수 있다. 단, 인문계열 상위 난도인 국어 B형과 자연계열 상위 난도인 수학 B형은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

영한다. <표적> 오는 5월17일 치르는 예비시험은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순으로 치러진다. 시간은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수험생은 국어·수학·영어에서 A형과 B형 중 하나를 선택해 응시하되 B형은 최대 2과목까지 응시할 수 있다. 단, 인문계열 상위 난도인 국어 B형과 자연계열 상위 난도인 수학 B형은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

사하(10과목)·과학탐구(8과목) 영역은 최대 2과목까지 선택 가능하며 직업탐구(5과목) 영역은 1과목만 선택한다. 제2외국어·한문(9과목) 영역도 1과목을 선택한다.

영한다. <표적> 오는 5월17일 치르는 예비시험은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순으로 치러진다. 시간은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Large advertisement for '자유투어' (JAYU TOUR)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to destinations like Jeju, Europe, and Hawaii, with prices and inclusions.

Footer section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of the travel agency, including phone numbers and addresses.